

#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 수두 확산세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무주군, 체납액 정리·징수를 제고 성과로 전북자치도 최고 평가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행정 역량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 실적, 과태료 징수율, 우수 사례 발굴 등 9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군은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체납처분 강화와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군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를 향상 위해 체납액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징수반 운영과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활용, 장기·소액·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분류 관리 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5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총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1억원을 징수해 98.3%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 장수군, 순국선열·호국영령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장수군은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장수를 남산 충혼비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기관·사회단체장,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현신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이날 참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보존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함



장수군은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장수를 남산 충혼비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께 공유했다. 또한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 충영탑에서는 덕유회(회장 박정래) 주관으로 별도의 추념식이 열렸다. 육십령 충영탑은 신장식 소령 이하 55명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01년 건립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충영탑을 참배하며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을 추모했다. 최훈식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서 건강 제빵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지역 아동들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알레르기 질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강 제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8일 무풍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무풍초등학교와 무풍초병설유치원 재학생 11명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아토피·천식 등록 아동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이날 프로그램은 제과기능사이자 홈디자이너 지도사인 김형심 강사가 이론 교육과 체험 실습을 맡아 진행했다. 이론 교육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아토피 예방을 위한 건강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체험 실습에서는 친환경 재료와 우리 밀 등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쿠키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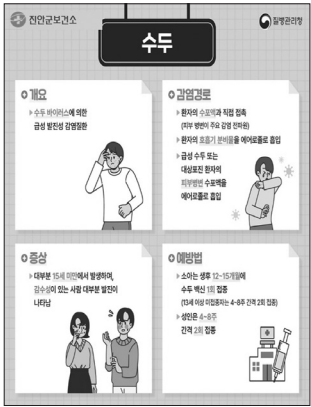


무주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서 건강 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진안군, 전국 환자 1만4000명 넘어... 소아·학생층에 집중

진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유입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수두 누적 환자 수는 1만 4,6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389명) 대비 약 9.3% 증가한 수치로, 5월 들어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10대 이하 소아·청소년층에 집중(1만 2,779명)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이나 수포에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되며, 미열과 전신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특징이다. 전염력이 강해 밀집도가 높은 보육·교육 시설은 한 명만 감염되어도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선제적인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진안군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진료 및 격리 △감염 시 등원·등교 중지(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 △뜨겁게 예방접종 완료하기 등의 주요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수두 확산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는 철저한 개인위생 지도를, 집단시설에서는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등 선제적인 예방 관리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온가족 명랑운동회 '너랑나랑노랑' 성료

진안군은 지난 6일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온가족 명랑운동회 '너랑나랑노랑' 행사가 600여 명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디어 화면 밖으로 나와 몸으로 신나게 노는 오늘 하루"라는 주제로 기획되어, 스마트폰과 미디어에서 벗어나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야외 활동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본 행사에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련된 체험 부스에서는 '무궁화 바람개비 만들기', '무궁화 및 태극기 배지 만들기' 등 호국보훈의 의미를 일깨우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이들 동반한 참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메인 무대에서는 아트리크 마술쇼, 비보잉 서커스 등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본 행사인 명랑운동회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사전 안내된 '너도나도 노랑!' 드레스 코드에 맞춰 노랑색 옷을 입고 온 관광객들이 주를 이루, 잔디광장

전체가 노랑빛으로 물드는 밝고 일체감 있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명랑운동회는 386명이라는 뜨거운 접수 열기 속에 행사명에 맞춰 '너랑', '나랑', '노랑' 3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진안군은 이른 무더위를 고려해 격렬하게 뛰는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 모두가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고 냉방기와 선풍기 등을 갖춘 '무더위존'을 운영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파로 인해 일시적인 먹거리 부족과 더위로 인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참가자들은 주변 야외 체육장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식히고 새롭게 개장한 놀이터와 실내 키즈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행사를 끝까지 만끽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완료

장수군은 도로주행형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운기와 트랙터의 시인성을 높여 일반차량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 없이 진행됐다.

군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업체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저속차량표시등 13대와 방화장치등 7세트를 부착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등화장치는 태양광을 활용해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으며, 유지관리 부담이 적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농가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군, AI 활용 역량 갖춘 행정실무전문가 양성 추진

장수군은 8일 군청 2층 전산교육장에서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센터장 허명숙)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행정·사무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취업의지가 높은 관내 경력보유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행정·사무분야의 기본 역량을 익히는 것은 물론, AI 활용 사무실무 교육까지 함께 수강한다. 이날 개강식에는 관내 5개 기관·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교육생들의 취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